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 VIP 리포트

■ 7대 산업 경기의 특징과 2014년 산업 전망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7대 산업 경기의 특징과 2014년 산업 전망

### PATR I. 2014년 7대 산업 경기의 특징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2014년 7대 산업 경기의 특징 .....	6
3. 시사점 .....	15

### PATR II. 2014년 산업 전망

① 건설업 .....	19
② IT제조업 .....	22
③ 자동차산업 .....	25
④ 철강산업 .....	28
⑤ 석유화학산업 .....	31
⑥ 조선업 .....	34
⑦ 기계산업 .....	37
⑧ 해운업 .....	40

【HRI 경제 통계】 .....	44
-------------------	----

# PATR I. 2014년 7대 산업 경기의 특징

---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2014년 7대 산업 경기의 특징 .....	6
3. 시사점 .....	15

< 요약 >

■ 2014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2014년 주요 산업은 대내외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대부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구조적 문제로 수요부진 및 공급과잉이 심각한 산업들은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불황 국면 탈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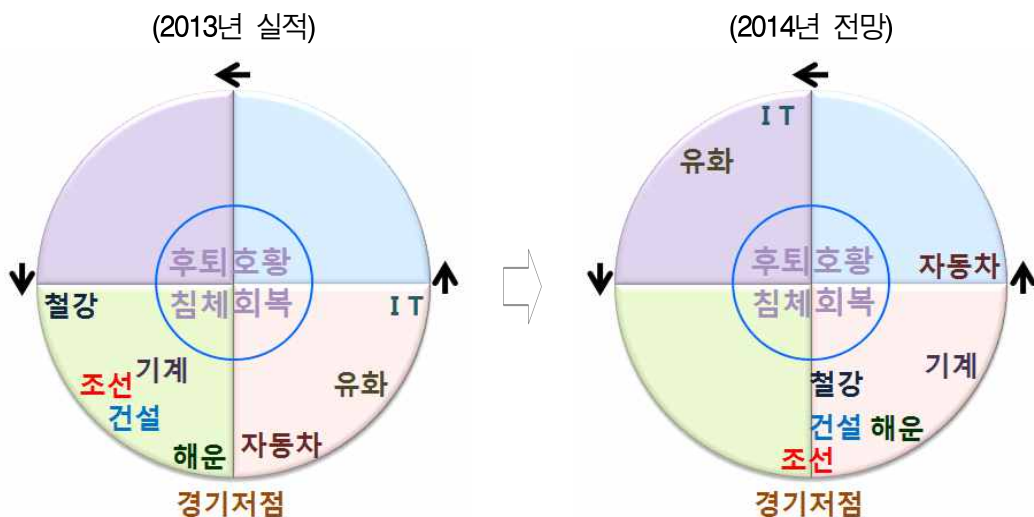
**(회복 - 철강산업, 건설업, 해운업, 기계산업)** 산업별로 **철강산업**은 경기 저점을 통과하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나 철강 제품의 수요 확대가 제한적임에 따라 그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으로 공공 수주가 침체되는 가운데 장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민간 수주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해운업**은 세계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내 공급 과잉 문제 지속으로 운임 단가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계산업**은 대내외 경기회복세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호황 -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은 선진국 수요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르는 소비자 구매력 상승 등으로 내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의 상당 부분은 수입차가 시장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후퇴 -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전방산업의 미약한 회복세,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업황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공급과잉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은 세계 IT 시장의 규모 확장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주력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산업경기가 후퇴할 우려가 존재한다.

**(불황 - 조선업)** 조선업은 기존 저가 수주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신규수주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2014년 7대 산업 경기의 특징

**2014년 산업 경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수출 제조업 주도의 산업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 제조업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수출시장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3년에 들어 제조업 성장 기여도가 점차로 회복되면서 2013년 3/4분기 현재 기여도는 1.3%p로 서비스업의 1.5%p에 근접하고 있다. 2014년에는 수출이 내수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가 서비스업을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다시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선진국 시장 지향형 수출산업의 상대적 호조가 전망된다.** 2014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개도국·신흥공업국보다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IMF에 따르면 선진경제권의 성장률은 2014년에 2.0%로 개도국·신흥공업국의 5.1%보다는 낮으나 그 격차는 2002년 이후 가장 격차가 좁혀지게 된다. 세계 경제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선진국의 비중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는 향후 선진국 시장에서 그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품목중 IT, 자동차, 선박 등과 같이 선진국 시장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긍정적인 수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신흥국 특히 중국 시장 수출 비중이 높은 유화, 기계, 철강 등은 회복이 지연되거나 더딘 개선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초소재 산업은 'China Risk'에 직면하여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소재산업인 철강 산업은 이미 2012년 말부터 중국의 재고 증가, 주요국의 수입 규제 등으로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도 2013년 상반기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하반기에 들어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산업 경기가 불안한 모습이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전략산업인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두 산업에 대한 중국의 생산 능력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 두 산업은 중국시장의 수요 위축에 따르는 공급과잉 문제(China Risk)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넷째, 내수 소비재 시장에서 수입 제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EU와의 FTA에 따른 관세 인하, 외국 기업의 마케팅 강화 등으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소비재 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전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2010년 5.8%에서 2013년 10.3%로 급증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향후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내수시장에서 주요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서비스 산업 내 공공서비스업의 상대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이후 내수 경기 부양과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2013년까지 민간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2% 내외에 그쳤으나 공공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경기 회복세 강화 및 사회복지 수요 부응을 위해 관련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도 공공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서비스업 경기도 점차 회복되면서 그 격차는 2013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수주 산업은 시장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구조적 불황 국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양대 수주 산업중 건설업은 2013년 하반기중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기성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약 1년 내외 기간을 앞서가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추가대책들이 이어질 경우 민간 부문 중심으로 소폭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선업은 2013년에 들어 일부 해운사들이 향후 시장 수요 회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발주에 나섬에 따라 신규 수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향후 공정기간상 금융위기 이후 낮은 조선가에 발주된 수주물량이 건조·생산되면서 업계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곱째, IT 산업은 시장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고 발전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 마련의 필요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IT 산업 경기도 국내 경제를 이끌고 왔으나 향후 스마트폰, 메모리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IT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의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의 확충과 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IT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그 성과지표 수준 제고 등 IT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IT 산업의 입장에서 우호적인 정책 여건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종의 공공 부문에서의 유효수요 창출이 IT 산업내의 실제 수요와 부합한다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다.

#### ■ 시사점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산업경기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진국 경제권의 수요 확보를 위해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신흥 시장 리스크를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차이나 리스크에 직면한 공급과잉 산업의 활로는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에서 찾아야 한다. **넷째**, 수입 소비재 급증 추세에 대응하여 수입 제품의 안전성 강화 및 국산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서비스업의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업 수요 증대를 위해 SOC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IT 산업의 발전단계 도약과 창조경제 견인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1. 개 요

### (1) 최근 국내 경기 동향

#### ○ 거시 경제 동향

- (경제 성장률 상승)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분기 1%대에서 3/4분기 3%대로 상승하는 추세
- (내수 경기의 미약한 회복) 민간소비 증가세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빠르게 확장되고 설비투자도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
  - (민간소비 부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1%대 중반에 머물렀으나 3/4분기에 들어 2%대로 높아지는 모습임
  - (설비투자 증가세 전환) 상반기중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대내외 수요의 회복으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됨
  - (건설투자 반등세) 민간·건축 부문의 미약한 회복세와 그 동안의 침체 따른 전반적인 기술적 반등 효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임
- (수출 경기의 개선) 수출 경기는 상반기중 거의 제로 성장에 그쳤으나 3분기에 들어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0%대에서 3분기에 2.9%, 10월에는 7%대로 높아지는 모습임
  - 수출 지역별로는 미국(10월중 23.2% 증가율 기록), EU(16.0%) 등 선진국 시장이 호조를 보였으며, 품목별로는 IT제품이 우리 수출을 견인함

#### <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민간소비(%)	2.4	1.7	1.5	1.7	2.2	
	건설투자(%)	-4.7	-2.2	2.4	7.1	8.0	
	설비투자(%)	3.6	-1.9	-11.9	-5.1	1.8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	261	431	100	198	190	
	통관 기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7	143	111
		수출증감률(%)	19.0	-1.3	0.4	0.8	2.9
		수입증감률(%)	23.3	-0.9	-3.0	-2.7	0.2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주: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기준.



○ 산업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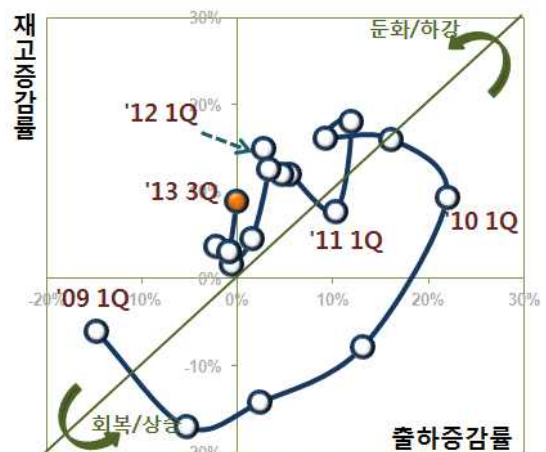
-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낮은 수준의 생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은 기술적 반등효과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
- (제조업 경기의 미약한 회복)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수출경기 침체로 상당기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013년 2/4분기까지 마이너스를 지속하였으며 3/4분기에도 거의 제로 성장세를 기록함
  - 특히, 재고-출하 사이클상 3/4분기 현재 재고증가율은 높아지고 출하증가율은 정체되면서 아직까지는 경기 부진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서비스업 경기 부진) 서비스업도 내수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4분기까지 생산 증가세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함
- (건설업 경기 반등) 건설업의 경우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기성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적 반등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생산지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기준  
 2) 건설업은 기성액 기준.

<제조업 재고-출하 지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2) 2014년 대외 경제 전망<sup>1)</sup>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IMF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이 진행되면서 성장률은 2013년 2.9%에서 2014년 3.6%로 개선될 전망
  - 2014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경제의 회복, 유로존의 재정 긴축 완화 등으로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주택경기과 소비 회복, 가계자산 증가 등으로 2%대 후반 성장률 예상
    - 일본: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 긴축 재정 등의 제약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2년보다 낮은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유로존 : 제한적이거나 재정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면서 1% 내외의 경제성장률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성장률은 2013년 4%대 중반에서 2014년 5%대로 높아질 전망이나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빠른 경기 확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6%에서 2014년 7.3%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세계 교역 전망)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세계 교역량증가율은 2013년 2.9%에서 2014년 4.9%로 상승할 전망

< IMF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전망 >

(%)

	2012	2013(E)	2014(E)	
			2013.7월 전망	2013.10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3.2	2.9	3.8	3.6
선진국	1.5	1.2	2.1	2.0
미  국	2.8	1.6	2.7	2.6
유로지역	△0.6	△0.4	0.9	1.0
일  본	1.9	2.0	1.2	1.2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9	4.5	5.4	5.1
중  국	7.8	7.6	7.7	7.3
인  도	3.2	3.8	6.3	5.1
ASEAN5	6.2	5.0	5.7	5.4
세계교역량증가율	2.7	2.9	5.4	4.9

자료: IMF(2013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 - Transitions and Tensions」.

1) IMF(2013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 - Transitions and Tensions」 참조.

(3) 2014년 국내 경제 전망<sup>2)</sup>

## ○ 경기 개관

- 2014년 경기는 외수 측면에서 경제 회복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
-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기 회복을 견인. 2014년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대에서 3%대 후반으로 상승하여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이 전망

## ○ 내수

- 민간소비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구매력 증가, 가계 실질소득의 완만한 증가로 2%대 후반 증가 예상
- 설비투자 :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조정압력과 민간 기계수주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인 6%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 :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하여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 대외 거래

- 2014년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입 증가율은 완만한 성장이 예상
- 수출은 대미국 및 대유럽 수출 회복,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2)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10월)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경제주평 13-42 참조.

연간 8%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99억 달러, 49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수입 증가로 흑자폭은 2013년 대비 축소될 전망

○ 고용과 물가

- 고용 : 2014년 기업투자 및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에 두는 정부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 물가 :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과 명목 임금 인상 등 공급측 요인으로 2013년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 등은 물가 상승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14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구 분		2012	2013(E)	2014(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0	2.6	3.8
	민간소비 (%)	1.7	2.0	2.7
	건설투자 (%)	-2.2	3.7	2.5
	설비투자 (%)	-1.9	-1.5	6.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431	62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68	399
	수 출 (억 달러)	5,479	5,648	6,123
		(증가율, %)	(-1.3)	(3.1)
	수 입 (억 달러)	5,196	5,180	5,724
		(증가율, %)	(-0.9)	(-0.3)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		2.2	1.4	2.4
실업률 (평균, %)		3.2	3.3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27	1,098	1,07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3. 10월)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경제주평 13-42.

## 2. 2014년 7대 산업 경기의 특징

### (1)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sup>3)</sup>

- 2014년 주요 산업은 대내외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대부분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구조적 문제로 수요부진 및 공급과잉이 심각한 산업들은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불황 탈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회복) 철강산업, 건설업, 해운업, 기계산업
  - 철강산업 : 경기 저점을 통과하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나 철강 제품의 수요 확대가 제한적임에 따라 그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
  - 건설업 :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으로 공공 수주가 침체되는 가운데 장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민간·건축 수주는 소폭 증가할 전망
  - 해운업 :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업종 시황의 회복세가 전망
  - 기계산업 : 대내외 경기회복세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호황) 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 : 선진국 수요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르는 소비자 구매력 상승 등으로 내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은 수입차가 시장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

3) 자세한 산업별 경기 전망은 “ PATR II. 산업별 최근 경기 동향과 2014년 전망” 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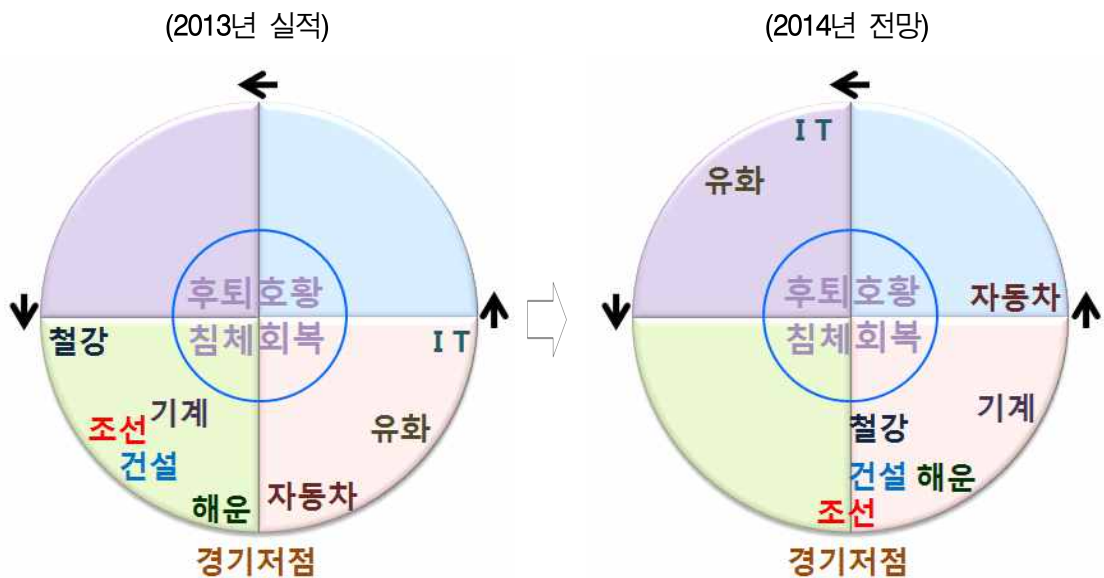
○ (후퇴) 석유화학산업

- 석유화학산업 : 전방산업의 미약한 회복세,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업황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공급과잉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IT산업 : 세계 IT 시장의 규모 확장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주력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산업경기가 후퇴할 우려가 존재

○ (불황) 조선업

- 조선업 : 조선업은 기존 저가 수주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신규수주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망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2) 2014년 7대 산업 경기의 특징

① 수출 제조업 주도의 산업 경기 회복

○ 2014년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제조업이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재 부상할 것으로 기대

- 제조업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수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들어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 2012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는 서비스업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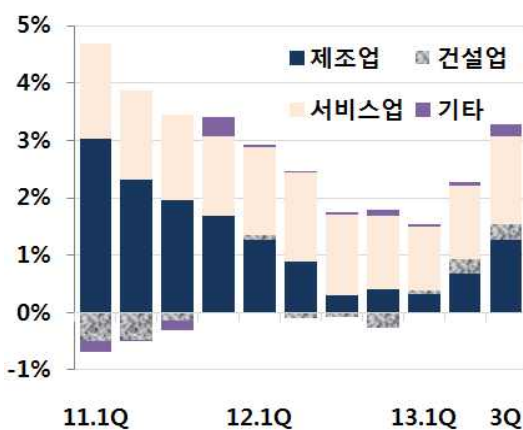
· 그러나 2013년에 들어 그 성장 기여도 격차는 점차 축소되어 3/4분기 현재 기여도는 제조업 1.3%p, 서비스업 1.5%p를 기록함

- 2014년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제조업 경기가 서비스업을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심수요가 각각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 있기 때문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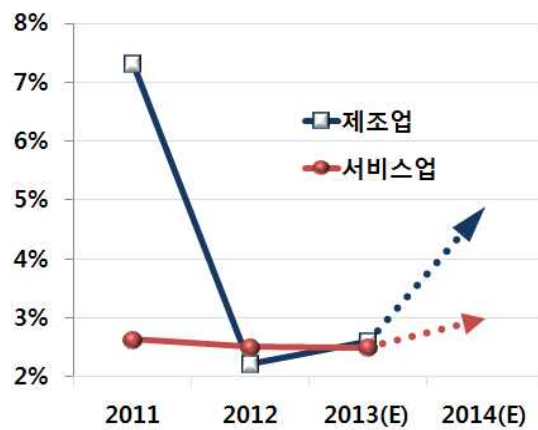
· 2014년 수출 경기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 제조업의 생산 증가세가 서비스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주요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 · 서비스업 생산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3년은 1~3분기 실적치를 이용 추정.

4) 2001~12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증가율에 수출증가율이 약 70%,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에 민간소비증가율이 약 9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② 선진국 시장 지향형 수출산업의 상대적 호조

○ 선진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신흥국보다 빠를 것으로 보여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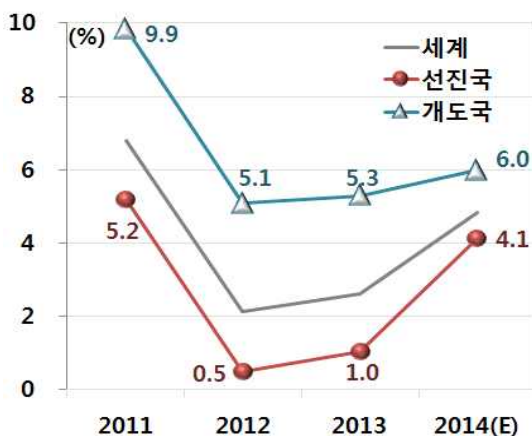
- 2014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개도국·신흥공업국보다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IMF<sup>5)</sup>에 따르면 선진경제권의 성장률은 2013년 1.2%에서 2014년에 2.0%로, 개도국·신흥공업국은 같은 기간 4.5%에서 5.1%로 예상함
- 이 경우 개도국 및 신흥공업국과 선진국과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2014년 3.0%p를 기록하게 되는데 2002년 이후 가장 격차가 좁혀지게 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침체되었던 선진국 수입수요도 빠르게 회복되어 수입물량 증가율은 2013년 1.0%에서 2014년 3.1%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IT, 자동차 등 선진국 시장 비중이 높은 품목에게 긍정적인 수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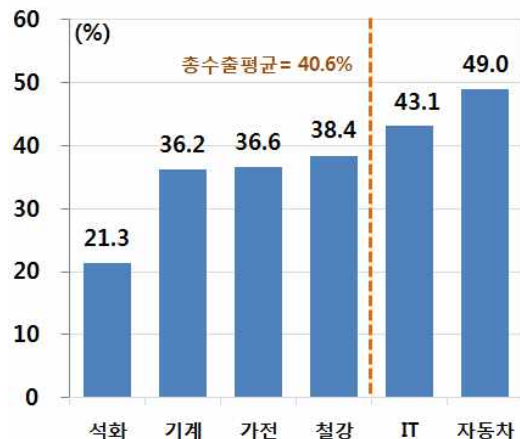
- 우리 제품중 선진국 시장 수출 비중이 높은 IT, 자동차 등의 수요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 신흥국 시장 비중이 높은 유화, 기계, 철강 등은 회복이 지연되거나 더딘 개선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신흥국 현지시장으로 직접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신흥시장 리스크(Emerging Market Risk)에 노출되는 정도가 클 것으로 우려됨

<선진국 및 개도국 수입물량증가율>



자료: IMF.

<주요 수출품의 선진국 시장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2013년은 1~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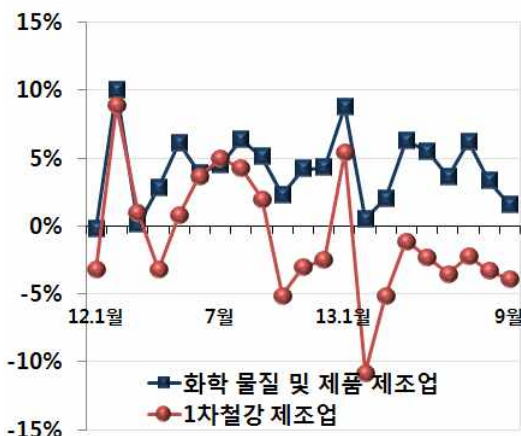
5)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3년 10월 전망).



③ 기초소재 산업의 'China Risk' 지속

- 유화, 철강 등 기초소재 산업은 금융위기 이전 중국 수요에 의존(China Effect)하여 고성장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생산능력 확충에 따르는 공급과잉(China Risk)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전망
- 철강산업은 이미 2012년 말부터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 생산 증가율도 최근에 들어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
  - 철강산업의 생산 증감률은 이미 2012년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중이며, 중국의 재고 증가, 주요국의 수입 규제 등으로 2012년과 2013년 1~10월까지 모두 감소세를 기록중
  -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최근 7월을 정점으로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증감률도 9월과 10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대 중국 수출비중 48%)되고 있어 산업 경기가 위축될 우려 존재함
- 중국 정부의 전략 기간산업인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의 국산화 추진 정책으로 향후 관련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대내외 수요가 회복될 경우 수입 대체를 위해 다시 생산능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철강산업과 유화산업의 기초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인 조강 능력과 에틸렌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전망됨

<철강 및 유화 산업 생산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중국 조강 및 에틸렌계 유도품 생산능력 전망>



자료: 中國鋼鐵工業協會, 日本石油化學工業協會 經濟産業省.

④ 내수 소비재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 급증

○ 선진국 시장과의 FTA 체결, 외국 기업의 마케팅 강화,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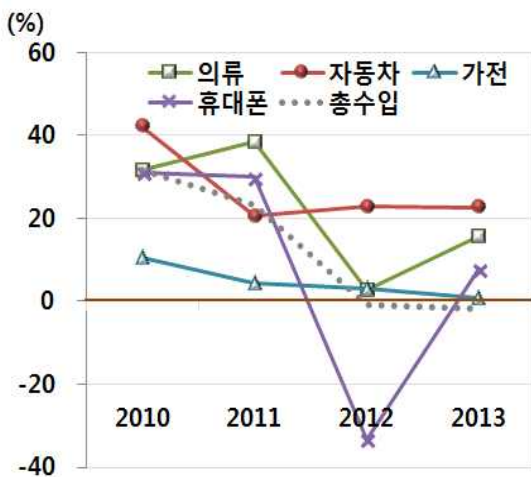
- 미국 및 EU와의 FTA에 따른 관세 인하, 외국 기업의 마케팅 강화, 원화환율을 하락에 의한 국산재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13년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 증가율이 상승

- 최근에 들어 소비재 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전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입이 크게 늘어 자동차 수입침투율(수입차판매/내수 판매)이 2010년 5.8%에서 2013년 10.3%로 급증함

- 향후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 2014년 소비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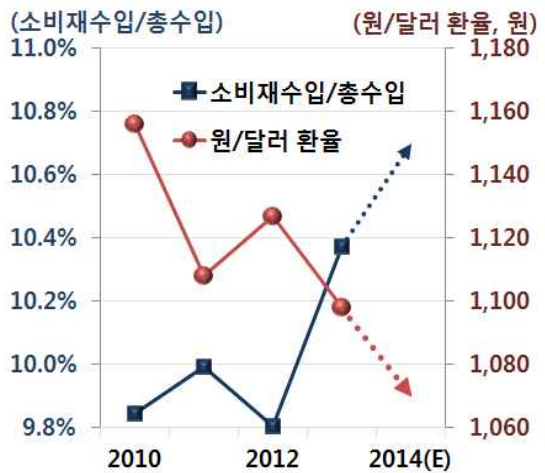
-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내수시장에서 소비재 수입이 다른 수입재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됨
- 2014년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상관관계의 영향으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됨

<총수입 및 주요 품목 수입액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2013년은 1~9월.

<소비재수입액/총수입액 비중 및 환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주: 2013년은 1~3분기.

⑤ 서비스 산업 내 공공서비스업의 상대적 호조

○ 정책적 요인으로 공공서비스업 경기가 민간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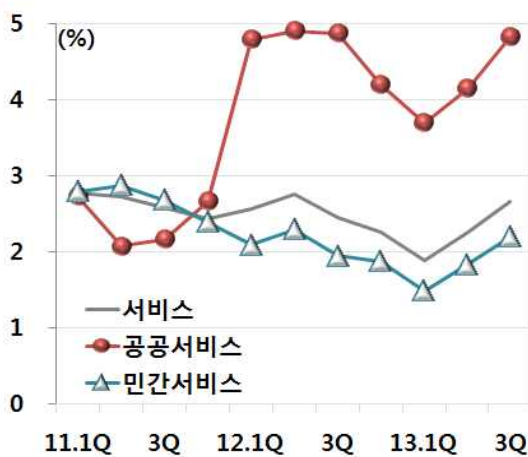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최근까지도 공공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2012년 이후 내수 경기 부양과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업 지출이 크게 증가함
-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민간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2% 내외에 그쳤으나 공공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4%대를 기록함

- 2014년에도 경기부양 및 사회복지수요 부응을 위한 관련 공공서비스 재정 지출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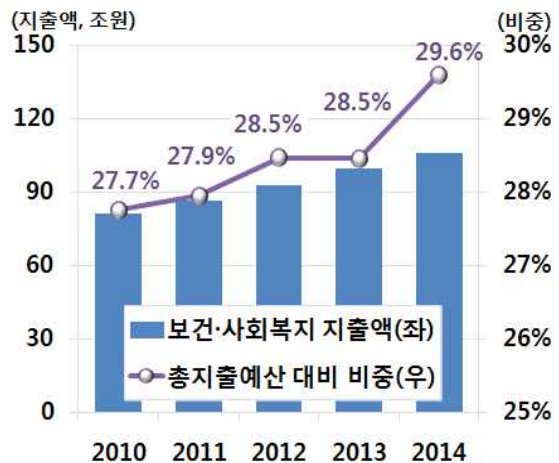
- 정부 안에 따르면 2014년 보건·사회복지 예산 지출액은 약 106조 내외로 총지출 예산 대비 29.6%의 비중을 차지함
- 2014년에도 공공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서비스업 경기도 점차 회복되면서 그 격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생산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주: 공공서비스 =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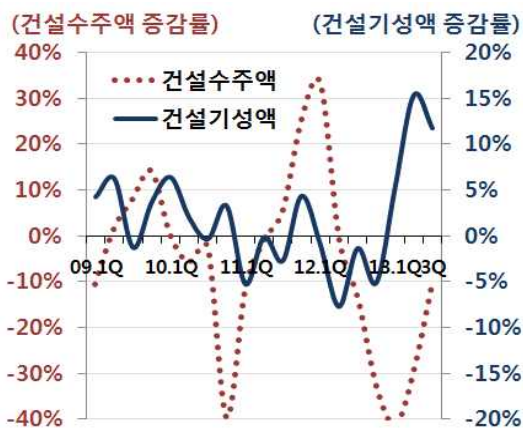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안.

⑥ 수주 산업의 구조적 불황 국면 지속 가능성

○ 국내 양대 수주 산업인 건설업과 조선업의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두 산업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건설업은 2013년 하반기 건설기성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빠른 경기 회복 가능성은 불투명
  -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민간·건축 부문이 크게 늘어 2013년 3분기 전년동기 대비 12%를 기록함
  - 그러나 약 1~2년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부동산 시장 추가대책들이 이어질 경우 민간 부문 중심으로 소폭 회복될 가능성도 있음
- 조선업은 최근 신규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2014년에도 기존 저단가 물량이 건조되면서 업계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 2013년에 들어 일부 해운사들이 향후 시장 수요 회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발주에 나섬에 따라 신규수주량이 증가하는 모습임
  - 그러나 2014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낮은 조선가에 발주된 수주물량이 건조·생산되면서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건설 수주액 및 기성액 증감률>



자료: 통계청.

<선박 신조선가치수 및 신규수주량>



자료: 한국조선공업협회, 클락슨.  
 주: 신조선가치수는 1988년 1월=100 기준, 연간 수치는 12개월 평균치임

⑦ IT 산업의 재도약 계기 마련 필요성 증대

○ 향후 IT 산업은 국내외 시장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고 산업의 발전 단계를 높여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계기로 국내 우호적인 정책 여건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

- 2013년에 들어 IT 산업이 비IT 산업에 비해 크게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중이나 2014년에는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3분기 IT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약 8%에 달하며 국내 산업생산을 견인하고 있음(제조업 전체 생산증가율은 IT 산업을 포함할 경우 +0.1%이나 IT산업을 제외할 경우 -1.7%로 크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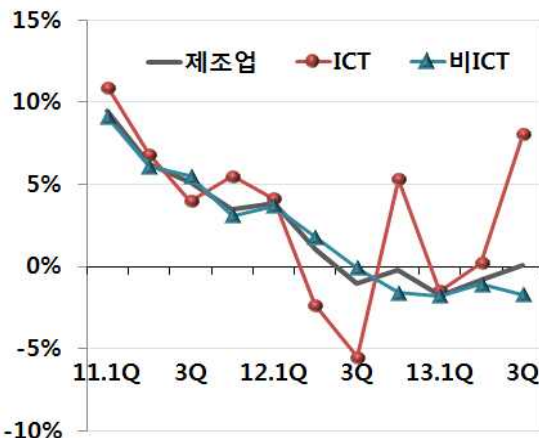
· 그러나 스마트폰, 메모리반도체 등 주력 IT 제품의 2014년 세계 시장 규모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한편, IT 산업은 산업 발전 단계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며,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의 역할과 관련된 국내 우호적인 정책 여건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

· 정부는 IT 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2013년 3조원, 2014년 3.2조원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IT 수출액, 기술상용화, 특허 활용 등의 투자 성과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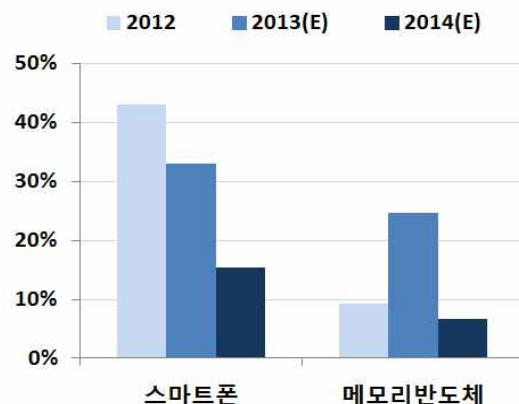
· 만약 이와 같은 일종의 공공 부문에서의 유효수요 창출이 IT 산업내의 실제 수요와 부합한다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음

<제조업 ICT 및 비ICT 생산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주요 IT제품 세계 시장 규모 증가율 전망>



자료: 스마트폰-SA, 메모리반도체-Gartner.

#### 4. 시사점

첫째, 선진국 경제권의 수요 확보를 위해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 상대적으로 선진국 시장의 수요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한-EU FTA와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정보 공유 및 공조가 보다 강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FTA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 원산지검증시스템 도입과 기업들의 인증심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둘째, 신흥 시장 리스크를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인 호조를 보였던 신흥 시장은 자체적인 경기순환의 하강 압력과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르는 통화 및 환율 충격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당장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 시장 대체가 불가능한 부문의 경우 신흥시장 내에서도 수출 지역을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경우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의 시장 수요, 정책 변화, 금융 및 외환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분석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셋째, 차이나 리스크에 직면한 공급과잉 산업의 활로는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에서 찾아야 한다.

- 중국의 전략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그 목표인 주요 기초소재의 국산화

을 제고 정책은 철강, 유화 등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 시장 및 제 3국 시장에서도 한·중간 제품 경쟁 격화로 이어질 것임

- 이에 대비하여 우리 기초소재 산업의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철강산업은 세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굴착 기자재 소재, 강관 소재 등 신성장 부문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고, 유화 산업도 경쟁력이 취약한 정밀화학, 바이오화학 부문 등으로 산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임

**넷째, 수입 소비재 급증 추세에 대응하여 수입 제품의 안전성 강화 및 국산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한 품질 기준 충족 및 위해요소 제거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업들도 구매력 상승, 사회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르는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품질, 브랜드,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함

**다섯째, 민간서비스업의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 상대적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 관련 재정 지출의 집중이 필요해 보이며,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및 평가 관리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조업과 공공서비스업의 경기 회복세가 물류, 금융, 사업서비스 등 「제조업 지원 후방 서비스업」과 관광, 문화, 의료 등 「고부가 가계소비형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수요 진작에 주력해야 함

여섯째,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업 수요 증대를 위해 SOC 예산의 조기집행 및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공 발주 SOC에 대한 상반기 조기 집행,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산업경기가 급랭하는 것으로 방지해야 할 것임
-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주택 매매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나, 과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자산시장이 다시 투기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일곱째, IT 산업의 발전단계 도약과 창조경제 견인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IT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 R&D투자, IT 분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산업의 유·무형의 기술력 제고 및 세계시장 선도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IT 산업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산업과의 원활한 융합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 내 부문간 부가가치 사슬 구축을 통한 벤처 창업 활성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제2의 IT붐'을 일으켜야 할 것임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 PATR II. 2014년 산업 전망

---

① 건설업 .....	19
② IT제조업 .....	22
③ 자동차산업 .....	25
④ 철강산업 .....	28
⑤ 석유화학산업 .....	31
⑥ 조선업 .....	34
⑦ 기계산업 .....	37
⑧ 해운업 .....	40

① 건설업

정부의 SOC예산 감축 등으로 공공 수주가 침체되는 가운데 장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민간 수주는 소폭 증가할 전망

○ (2013년 경기 동향) 기성액 기준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주액 역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건설기성) 건설기성액은 기존 건설수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율 자체는 다소 하락

-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건설수주로 인해 건설기성액<sup>6)</sup>은 2013년 3/4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
- 다만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2/4분기 15.6%에서 3/4분기 11.4%로 다소 둔화

- (건설수주)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건설수주액은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다소 둔화

- 건설수주액 증감률은 2013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41.2%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 각각 -28.8%, -9.4%로 감소폭이 축소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공종별 건설수주액 증감률 >



자료: 통계청.

주: 1) 건설기성액은 불변금액,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 기준  
 2) 건설기성액 및 수주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6) 건설기성액은 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통계청).

- (2014년 전망) 공공·토목 부문은 SOC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민간·건축 부문은 장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전망
  - (공공·토목 부문의 부진) 정부의 SOC 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액은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정부 예산 계획안에 기존 SOC사업과 신규 대형 SOC사업의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 내외로 감소 전망
    - 이에 따라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 규모가 감소하면서 건설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민간·건축 부문의 소폭 증가) 거시경제 여건 개선과 장기 침체에 따른 기술적 잔등 효과 등으로 수주액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폭은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2014년에는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건축 부문의 장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여 전체 수주액은 전년대비 3% 내외로 증가할 전망
    - 그러나 높은 주택 가격 수준과 가계 부채 문제, 준공 후 미분양 적체 현상 등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

(단위 : 조 원)

		2012	2013(E)	2014(E)
주체별	공공	26.1 (△9%)	26.4 ( 1%)	26.1 (△1%)
	민간	57.2 (△8%)	54.3 (△5%)	55.9 ( 3%)
공종별	토목	30.1 (△9%)	30.4 ( 1%)	30.1 (△1%)
	건축	56.7 (△9%)	53.9 (△5%)	55.7 ( 3%)
전체		86.8 (△9%)	84.2 (△3%)	85.8 ( 2%)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주체별 수주에서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 제외.

- (주요 현안)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지속, 기업의 성장 전략 변화, 민간 SOC 투자 기회 확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지속)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공공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인 경제의 경기 회복 기조가 미약하고 주택 시장의 수요 개선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공 부문 발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회사채 만기가 2014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중견 건설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 질 가능성
  - (기업의 성장 전략 변화) 국내 건설업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건설기업의 성장 전략 변화에 대한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건설업은 산업 사이클 상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장규모의 성장 정체, 치열한 가격 경쟁, 수익성 하락 등 성숙기 산업의 특징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판단
    - 이에 건설기업이 신규 건설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유지 및 보수, IT융합 건축 기술 등 새로운 성장 전략 확보가 필요
  - (민간 SOC 투자 확대) 정부의 SOC 예산 감축안에 따라 민간 기업의 SOC 사업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정부가 SOC예산을 감축함에 따라 SOC 과소투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자본을 이용한 SOC 개발을 계획
    -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으로 중소 건설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상존

② IT 제조업

세계 IT 시장의 규모 확장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주력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내의 시장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산업경기가 후퇴할 우려가 존재

○ (2013년 경기 동향) 반도체, 스마트 기기 성장에 힘입어 생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회복 국면에서 호황 국면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판단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재고-출하 사이클 상 회복 국면에서 호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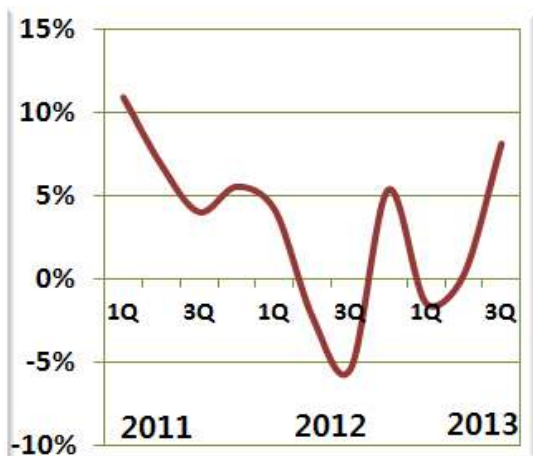
- 생산 증감률은 2013년 1/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 0.2%, 3/4분기 8.1%로 증가폭이 확대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도 출하증가율 및 재고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 (부문별 경기) TV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스마트 기기가 전체 IT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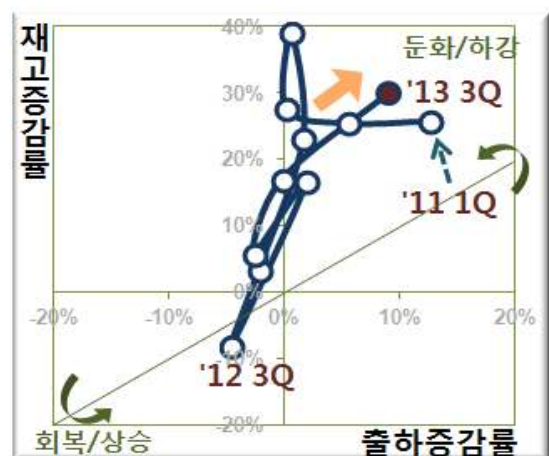
-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에 기인한 중소형 패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TV 수요 약세로 TV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
- 반도체는 업체간 경쟁 약화와 중국 공장 화재에 따른 공급 차질,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수출 호조가 지속

<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4년 전망) 세계 IT 시장의 규모 확장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는 지속 되겠지만 주력 품목들을 중심으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산업경기가 후퇴할 우려가 존재
-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IT 산업의 수출 및 내수 시장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IT 제품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스마트폰, 메모리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IT 제품의 세계 및 국내 시장 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IT 산업은 성장은 하겠지만 그 속도는 하락할 우려가 존재
  -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는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애플의 모바일AP 공급선 이원화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 패널 : 2014년에 예정된 대형 스포츠 이벤트 효과(소치동계올림픽, 브라질월드컵) 등의 긍정적 요인에 따른 TV 수요가 모바일 기기의 평균적 수요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스마트 기기 : 태블릿PC는 고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휴대폰 부문은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IT제조업 전망 >

구 분	2012	2013(E)	2014(E)
생 산 (조 원)	234 (4%)	253 (8%)	268 (6%)
수 출 (억 달러)	1,552 (△1%)	1,708 (10%)	1,844 (8%)
수 입 (억 달러)	779 (△4%)	826 (6%)	867 (5%)

자료: 실적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기기 생산은 정보기기, 부품,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를 포함(통신, 방송기기 제외).

- (주요 현안) 스마트폰 시장 포화, 차세대 UHD-TV 시장 개화, 사물인터넷 확산 등이 I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스마트폰 시장 포화)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관련 업체들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화두로 부상
    - 2013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0% 수준에 육박하면서 각 제조사의 전략 스마트폰 초기 실적이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등 시장 포화 현상 가시화
    -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는 2013년 한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4% 감소한 2,630만대로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위축될 것으로 추정
    -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중저가 제품을 통한 보급형 시장 공략, 차세대 스마트기기의 개발 등 관련 업체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2014년 화두로 부상
  - (차세대 UHD-TV 시장 개화) 차세대 방송서비스인 UHD-TV 시장 개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는 기존 HDTV 대비 4~16배 이상의 고화질을 제공하는 차세대 TV를 의미
    - 국내 업체의 제품 라인업 확대, 일본 및 중국 업체의 공격적 마케팅, 방송 서비스 상용화 등으로 UHD-TV 시장의 개화가 본격화
    - 국내에서는 2014년 내 UHD-TV 방송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세계적으로도 브라질 월드컵 시즌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나 성공적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될 필요
  - (사물인터넷 확산) 012 번호의 부활로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 범위 확대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일상의 사물에 유무선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킹 기술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월부터 사물인터넷에 과거 사용되었던 012번호 부여하기로 결정
    - 012 번호 부활로 현재 택시 무선결제, 전력검침, 버스 위치 정보 제공 등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되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

③ 자동차산업

선진국 수요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상승 등으로 내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상당 부분은 수입차가 시장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

○ (2013년 경기 동향) 2013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자동차산업은 부진에서 탈피

- (생산 및 재고·출하) 상반기까지는 생산 및 재고,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3/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

-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4분기, 2/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8%, -2.2%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는 5.2%로 증가세로 전환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 2012년 3/4분기 현재 출하와 재고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호황 국면으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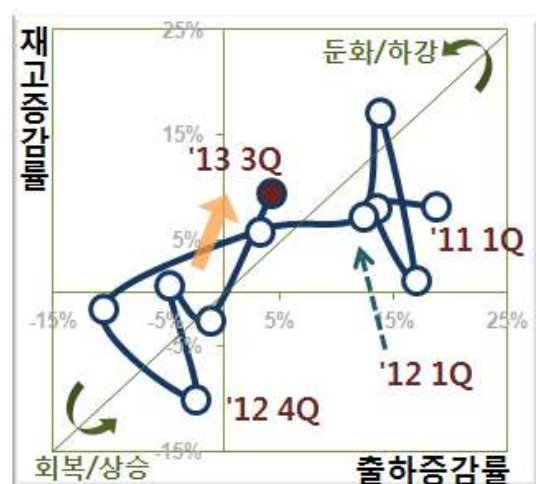
- (수출)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 역시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 전환

- 자동차 수출 대수 증가율은 1/4분기, 2/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8.6%, -4.5%를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는 0.9%로 플러스로 전환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4년 전망) 대내외 경기 회복으로 수출 및 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차 점유율 확대로 내수 증가폭은 다소 제한될 전망
  - (수출 증가)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라 자동차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해소, 소비자 구매심리 개선에 따라 신차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경기 사이클상의 하강 압력 증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 경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수출 경기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나 신흥국 현지시장으로 직접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신흥시장 리스크(Emerging Market Risk)에 노출되는 정도가 클 것으로 우려
  - (내수 회복)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나 수입차의 약진으로 국산차 판매 증가폭은 제한될 전망
    - 2014년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소비 심리 호전, 고용 여건 개선 등은 국내 가계의 자동차 소비 심리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적극적 마케팅 강화로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여 국산차 판매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 또한 가계부채 부담 지속, 평균 소비성향 하락 등도 가계의 자동차 구매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12	2013(E)	2014(E)
생 산 (만대)	456 (Δ2%)	455 (0%)	465 (2%)
내 수 (만대)	141 (Δ4%)	140 (Δ1%)	141 (1%)
수 출 (만대)	317 (1%)	315 (Δ1%)	324 (3%)
수 입 (만대)	13 (25%)	16 (22%)	20 (20%)

자료: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차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무인자동차 개발 경쟁, 압축천연가스(CNG)차 시장 급성장, 한·캐나다 FTA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무인자동차 개발 경쟁) 구글이 무인자동차 기술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과 협력을 전개
    - 구글은 2012년 공용 도로에서의 무인차 실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무인자동차의 도로 주행 시험을 진행 중
    - 구글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장악한 것처럼 자사의 지도 서비스(Google Maps)를 바탕으로 무인자동차 운영체제(OS)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전개
    - 유럽 및 미국의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
  - (CNG차 시장 급성장) 셰일가스 개발 붐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NG(압축천연가스)는 LPG(액화석유가스), 가솔린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연비도 높고, 탄소 배출량까지 적어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
    - 미국은 CNG 자동차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규정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들도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제공
    - 한편 국내 시장은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성 논란, LPG 업계의 반발 등으로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한·캐나다 FTA) 한·캐나다 FTA가 쇠고기,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
    - 한국은 2003년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가 2011년 수입을 재개하고 2013년 1월 FTA 협상을 재개
    - 쇠고기,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접근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타결 시점은 유동적
    - 현재 캐나다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6.1%가 철폐되면 높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캐나다 자동차 업계의 강한 반발로 실제 관세 철폐는 장기적, 점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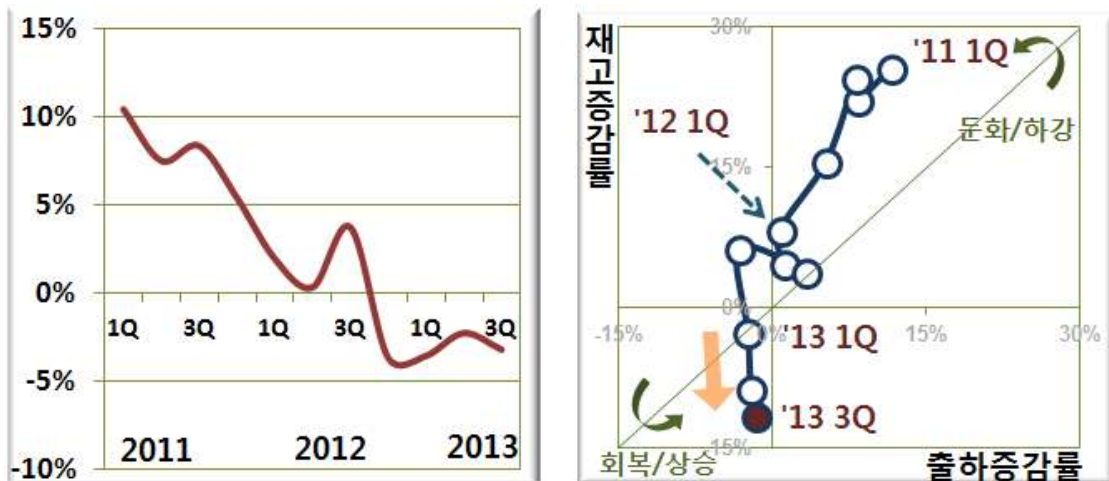
④ 철강산업

철강산업은 경기 저점을 통과하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나 철강 제품의 수요 확대가 제한적임에 따라 그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경기 동향) 경기 불황 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수출 역시 부진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고·출하 사이클 상 경기 저점을 형성 중
  - 철강 생산 증감률은 2012년 3/4분기의 일시적 반등 이후 다시 하락하며 2013년 3/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출하에 비해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고-출하 사이클상 경기 불황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의 진행 과정으로도 해석 가능
- (수출) 2013년 3/4분기 누적 기준 수출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수출 금액은 13.0% 감소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7) MTI코드 61 기준, 한국무역협회.

- (2014년 전망) 철강산업은 저점을 통과하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나 철강 제품의 수요 확대가 제한적임에 따라 그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
  - (수요의 제한적 반등)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의 정체 등으로 국내외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2013년의 조선 수주 증가, 2014년의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2014년의 철강 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지만 201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경기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철강 수출은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생산 반등 및 수입 정체) 수요의 반등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수입 감소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철강 생산 시설 확충이 2014년 마무리되면서 생산량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국내 철강 수요가 일부 반등함에 따라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량 감소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철강산업 전망 >

(단위: 만 톤)

구 분	2012	2013(E)	2014(E)
총수요	8,454 (△1%)	8,060 (△5%)	8,270 (3%)
	내수	5,405 (△4%)	5,130 (△5%)
	수출	3,049 (5%)	2,930 (△4%)
총공급	9,276 (△3%)	8,800 (△5%)	8,950 (2%)
	생산	7,205 (0%)	6,920 (△4%)
	수입	2,071 (△10%)	1,880 (△9%)

자료: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

- (주요 현안) 중국 구조조정의 실효성, 철강 시황의 저점 통과 기대, 동남아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
  - (중국 구조조정의 실효성) 중국 정부는 철강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급과잉 완화 등의 실제 효과 발생은 불투명
    - 중국 중앙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 그러나 중소형 철강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이 대형 업체로 이전되는 수준으로 공급과잉 해소의 실제 효과는 미미
    - 지방 정부 역시 철강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 고용효과 등을 고려 시 기존 생산 시설의 폐쇄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 (철강 시황의 저점 통과) 2014년은 철강 업체들이 시황의 저점을 거치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국 및 중국 철강 제조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2014년 최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의 대규모 설비 증설 계획은 없는 상황
    - 2014년 이후의 글로벌 철강 제품 수요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등의 철광석 생산 시설 증대에 따른 원재료 가격 하락이 전망
    -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공급과잉 및 낮은 채산성 문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완화가 기대
  - (동남아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철강의 수입의존도는 높은 반면, 생산 시설 가동률은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이 대두
    - 이미 2013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형성
    - 특히 동남아시아에는 글로벌 철강 업체들의 생산 기지가 설립되면서 이에 대한 활용이 불가피
    - 국내 생산 능력 확충, 내수 시장의 제한적 성장 등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한국, 중국, 일본의 철강업체들로서는 수출의 난항이 예상

⑤ 석유화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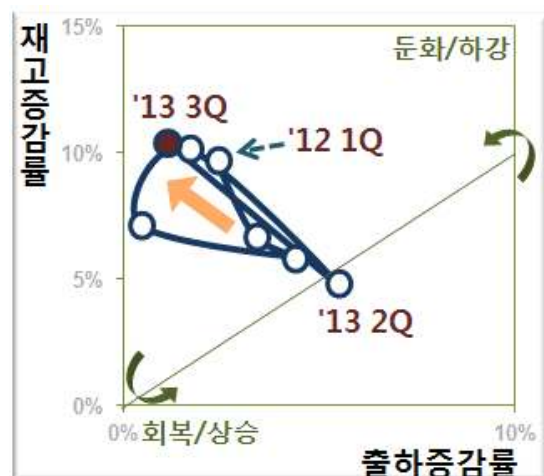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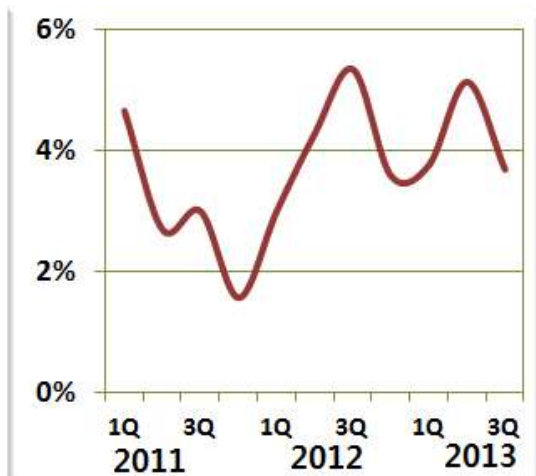
전방산업의 미약한 회복세,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업황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공급과잉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2013년 경기 동향) 석유화학산업 업황은 2013년 상반기 동안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다소 둔화
  - (생산 및 재고·출하) 상반기 동안 업황 회복이 지속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회복세가 다소 둔화
    - 상반기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던 생산 증가율은 3/4분기 들어 소폭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3.7%를 기록함
    - 2/4분기에는 재고-출하 사이클상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3/4분기 들어 재고증가율이 상승하고 출하증가율이 하락하는 경기 둔화 국면으로 전환됨
  - (수출) 2013년 3/4분기까지의 석유화학제품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여 2012년의 부진에서 벗어났으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약화
    - 최근 9월과 10월 수출증감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어 산업 경기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4년 전망) 전방산업 회복세 미약,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내수 및 수출 경기 회복세는 2013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내수) IT 부문을 제외한 전방산업의 경기 회복이 미약하기 때문에 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하면서 기초소재로 주로 활용되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
    - 특히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 산업의 호조가 내수 진작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IT 부문 이외에 건설업 등 전방산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내수 진작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수출)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 경기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 둔화는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원화가치의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도 상존

<석유화학산업 전망>

구 분	2012	2013(E)	2014(E)
생 산 (만톤)	2,142 (0%)	2,200 (3%)	2,250 (2%)
수 출 (만톤)	1,174 (1%)	1,210 (3%)	1,240 (2%)
수 입 (만톤)	97 (3%)	100 (3%)	102 (2%)
내 수 (만톤)	1,061 (0%)	1,080 (2%)	1,090 (1%)

자료: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 (주요 현안) 중국의 석탄화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 피드스탁(Feedstock) 다변화, 제품별·기업별 차별화 방안 모색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
- (중국의 석탄화학 투자 확대) 원유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석탄화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
  - 중국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자급률을 증대하기 위해 자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활용한 화학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 한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부진이 우려
  -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석탄화학산업은 수익성 검증 미흡, 환경 문제 악화 우려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
- (피드스탁 다변화) 석유화학제품의 피드스탁<sup>8)</sup>이 원유 정제과정의 부산물인 나프타에서 중동의 천연가스, 북미의 셰일가스, 폐기물 원료 등으로 다양화
  - 중동 국가들은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연가스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 북미의 기업들은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설비투자를 본격화
  - 한편 지속가능 성장이 이슈화되면서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 화학제품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대두
- (제품별·기업별 차별화)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 요소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 추진
  - 국내 기업들은 천연가스 기반의 에탄크래커(에탄 분해설비)에서 생산할 수 없는 非에틸렌 계열의 제품 생산에 특화하는 전략 가능
  - 기술 및 공정 혁신을 통한 생산 효율 증진,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한 저가 원재료의 확보, 중국 이외의 새로운 신흥수출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 추진

8) 제품 공정시 주가 되는 원료를 의미.



⑥ 조선업

조선업은 기존 저가 수주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신규수주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망

○ (2013년 경기 동향) 지표상 추세가 엇갈리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긍정적 징후 부각

- (생산) 2013년 조선업은 회복 징후로 시작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생산지수는 2013년을 증가세로 시작했지만 2/4분기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하락세가 더욱 심화
- (수주) 국내 신규수주는 증가했지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한국조선해양협회 9개 회원사들의 2013년 1~3분기의 신규 수주규모는 889만 CGT<sup>9)</sup>로 2012년 1~3분기의 505만 CGT보다 76%이상 증가
  - 그러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3분기 누적 수주량인 1,900만 CGT의 절반 수준에 불과
  - 한편 3분기말 수주잔량은 2,906만 CGT로 전년 동분기말 대비 4.5% 증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국내조선사의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조선해양협회.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수주잔량 및 신규수주량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구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 기준.

9)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4년 전망) 신규수주량은 소폭 증가, 수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기존 저가 수주 영향으로 업계 수익성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수주량) 해운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2013년 3/4분기까지 수주량은 888만 CGT로 전년 동기 504만 CGT보다 76% 증가했지만 고부가가치 특수선 분야의 신규수주는 거의 없는 상황
    - 해운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수주가 큰 폭을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건조량) 조선사들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소량생산 체계로 생산구조가 전환되면서 건조량은 감소할 전망
    - 2013년 3/4분기까지 건조량은 842만 CGT로 전년동기까지 건조량 1,019만 CGT보다 약 17%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도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출) 물량 감소를 고부가가치 선박수출로 상쇄하면서 전체 수출은 201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13년 3/4분기까지 전체 선박류 수출은 전년동기까지의 306억 1천만 달러보다 약 13%, 49억 달러 감소한 265억 3천만 달러 기록
    - 2014년 선박류 수출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감소세를 멈추고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선가가 낮은 시기에 수주한 물량의 영향으로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 조선업 전망 >

구 분	2012	2013(E)	2014(E)
신규수주량 (만 CGT)	717 (△38%)	1,200 (67%)	1,236 (3%)
건조량 (만 CGT)	1,172 (△13%)	970 (△17%)	820 (△15%)
수출규모 (억 달러)	378 (△30%)	380 (0%)	380 (0%)

자료: 수주량과 건조량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원사 9개 합계 기준, 수출규모는 전체 선박수출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조선업 구조조정, 개별 조선기업의 신사업 부문 구조조정, 해외 진출 전략 재고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
  - (산업 구조조정) 일부 중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신규발주 집중, 수주 양극화 등으로 인해 승자독식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산업 구조조정 요구 확대
    - 선박의 신규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중대형 조선소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머지 대다수 중소형 조선소들은 이로부터 소외
    - 2015년까지 중국이 조선업에 대한 설비 증산을 엄격히 억제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선소들의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수주 양극화는 당분간 심화
    - 수주를 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조선소를 통폐합해 전체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
  - (신사업 부문 구조조정) 그 동안 국내 조선업계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추진했던 신규 사업 중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 대두
    - 2009년 이후 세계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분야를 넘어 발전, 정유, 건설 등의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
    -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원전, 발전, 신재생 에너지 사업, 대우조선해양의 부동산, 건설 그리고 STX조선해양의 사례와 같이 대부분 수익성에서 고전
    - 신규 사업 부문의 수익성 악화는 그룹 전체나 주력 계열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하며 특히 저점을 벗어난 시기가 적당
  - (해외 진출 전략 재고) 경쟁국 일부 조선업체들의 움직임으로 해외진출과 현지생산이 실현가능한 경제성 있는 전략으로 재등장
    -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이마바리 조선 등 5개 조선 관련 회사가 브라질 최대 조선업체에 3,200억 원을 투자해 30%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
    - 브라질 측의 조선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할 시설 확장 및 최신기술 도입 필요에 일본 측의 자본과 기술제공이 지분참여를 통해 결합한 형태
    - 실패로 끝난 중국 STX대련과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 프로젝트 이후 주춤했던 해외진출과 현지생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

⑦ 기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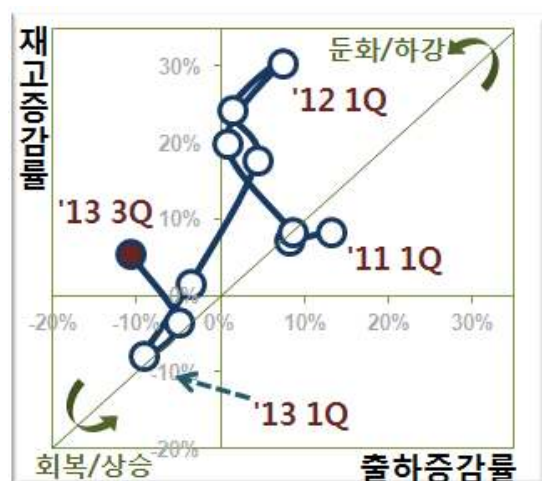
대내외 경기회복세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국내 기계의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경기 동향) 설비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생산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부진한 상황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출하 사이클 상 경기 하강 국면으로 재진입
  - 국내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원화 가치 상승 및 대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도 부진함에 따라 국내 기계산업 생산 감소세가 심화
  - 출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침체되는 모습
- (수출입) 對중국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며, 수입 역시 국내 설비투자 위축으로 감소폭이 확대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4년 전망) 대내외 경기회복세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국내 기계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생산) 국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로 기계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14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 동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기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해외 기계수요 확대 역시 생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설비투자 확대, 중국 등 신흥국 수요 호조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제조업체들의 리쇼어링 등에 따른 선진국 설비투자 수요 확대는 기계산업 수출 확대 요인
    - 또한 중국의 재고소진 및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견조한 기계수요 역시 국내 기계 수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엔저 현상 지속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인한 중동 수출 감소 등은 기계산업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입) 기계 수입 역시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계산업 전망 >

구 분	2012	2013(E)	2014(E)
생 산 (조원)	106 (4%)	110 (4%)	119 (8%)
수 출 (억불)	432 (0%)	445 (3%)	481 (8%)
수 입 (억불)	347 (△4%)	354 (2%)	379 (7%)

자료: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2011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품목분류 개편으로 과거 수치와 동일하지 않음.

- (주요 현안) 3D 프린팅 기술 보급 확대, 한-중 FTA 대응,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3D 프린팅 기술 보급 확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일부 일반기계 제품의 경우 3D 프린터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예상
    - 제3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3D 프린팅 산업이 기술 발전 및 단가 하락 등으로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
    - 포드의 경우 이미 일부 자동차 부품의 시제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등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금형제작 기계를 대체하는 수준
    - 제조업에서 이용되는 전통적 일반기계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점진적으로 3D 프린터의 이용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중 FTA 대응) 한-중 FTA 체결시 고부가 제품 위주의 대중 수출 증가 및 범용제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
    - 한-중 FTA 체결은 아직까지 비교우위가 있는 국내 일반기계 산업에 있어 고부가 제품 위주의 대중 수출 확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중국 일반기계 산업은 가격 우위에 더불어 기술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범용 및 중기술 제품의 경우 수입 증가에 따른 우려도 존재
    - 최근 한-중간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는 등 협상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산 기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
    - 국내 경기 호조 및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원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일본산 기계 제품은 높은 품질과 더불어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일본의 다른 산업에 비해 수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
    - 원고엔저 현상 지속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일본 제품과 경쟁이 심한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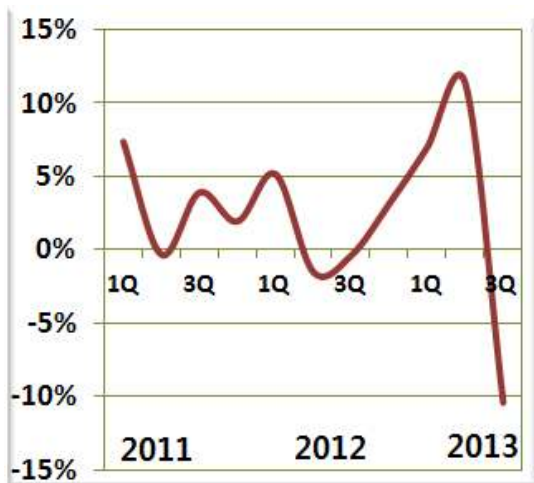
⑧ 해운업

해운업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업종 시황의 회복세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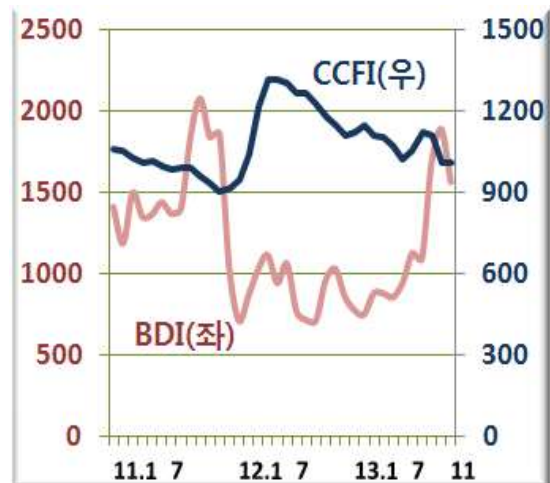
○ (2013년 경기 동향) 선진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신흥지역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업종 약세가 지속

- (생산) 3분기 들어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3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7.0%, 11.4%를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 -10.4%로 마이너스로 전환
- (해운 시황) 컨테이너 부문과 벌크 부문 모두 업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벌크 부문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
  - 컨테이너 운임지수(CCFI)는 하반기 들어 성수기를 맞으면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8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
  - 벌크선 BDI(운임지수)는 1,000p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9월 2,000p 수준까지 급등하였으나 다시 1,500p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BDI 및 CCFI 추이(단위: p)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상해항운거래소.

-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 BDI 및 CCFI는 월평균 기준.

- (2014년 전망)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업종 시황의 회복세가 전망
  - (컨테이너선) 선진국 경제 회복세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업황 개선이 전망
    - 선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은 전년 대비 증가세가 예상
    - 다만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중이어서 시황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벌크선) 중국의 수요 확대로 물동량 증가세가 예상되나 누적된 공급과잉으로 본격적인 시황 회복은 지연 전망
    - 벌크 수요를 견인하는 일부 신흥 지역의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벌크 물동량 증가세는 지속 예상
    - 다만 누적된 공급과잉으로 인해 업황 개선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유조선) 주된 수요처인 개도국 성장세의 미약으로 원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여지가 많지 않아 업황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세계적인 저성장세로 원유 수요 약세가 지속되면서 큰 폭의 물동량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다만 공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시장 수급 문제는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주요 해운지수 전망 >

구 분	2012	2013(E)	2014(E)
컨테이너선 [CCFI (1998=1,000)]	1,166 (18%)	1,080 (△7%)	1,170 (8%)
벌크선 [BDI (1985=1,000)]	920 (△41%)	1,100 (20%)	1,150 (5%)
유조선 [AG-동아시아(WS)]	47 (△11%)	38 (△20%)	40 (5%)

자료: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상해항운거래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해운지수는 기간 중 평균치임.



- (주요 현안) 해운업에는 선사 간 공조 활성화, 공급 조절, 노선 재편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선사 간 공조 활성화) 초대형 선사 연합체인 'P3'의 등장으로 선사 간 공조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
    - 최근 컨테이너 업계 1,2,3위인 Maersk와 MSC, CMA CGM이 선사 연합체인 'P3'를 결성하고 2014년 5월부터 공동 운항을 실시할 계획
    - P3의 컨테이너 시장 점유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어 P3의 공동 운항은 해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에 선사들이 선사 간 공조를 강화하면서 향후 시장 전략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공급 조절) 선사 수익성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공급 조절이 화두로 등장
    - 운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하였던 선박 계선량이 경기 회복세에 따라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
    - 추가적으로 그 동안 인도가 지연되었던 신규 선박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선박 공급 증가가 물동량 증가를 초과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증대
    -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선사들의 공급 조절이 과제로 부상할 전망
  - (노선 재편) 주요 신흥 지역간 경제 구조조정에 맞춰 선사들의 노선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그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국에서 내수가 침체되고 교역 규모가 위축되는 등 경제성장 둔화가 전망
    - 대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 등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교역량 증가세를 보이는 등 주요 신흥 지역의 경제 구조조정이 예상
    - 이에 따라 아시아 역내 교역, 아시아-아프리카 노선 등 신규 항로 수요에 따른 노선 재편 필요성이 증대 **HRI**

## 2014년 산업 전망 참여 연구진

- 【총괄】 한상완 산업연구본부장 (swhan@hri.co.kr, 2072-6230)  
주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 【건설】 오준범 연구원 (jbdevil@hri.co.kr, 2072-6247)
- 【IT 제조】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2072-6239)
- 【자동차】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2072-6237)
- 【철강】 김필수 선임연구원 (phil7941@hri.co.kr, 2072-6238)
- 【석유화학】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2072-6242)
- 【조선】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2072-6232)
- 【기계】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
- 【해운】 전해영 선임연구원 (haloween@hri.co.kr, 2072-6241)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연간(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2.6	3.8	
	민간소비(%)	2.4	1.7	1.5	1.7	2.2	2.0	2.7	
	건설투자(%)	-4.7	-2.2	2.4	7.1	8.0	3.7	2.5	
	설비투자(%)	3.6	-1.9	-11.9	-5.1	1.8	-1.5	6.7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261	431	100	198	190	620	490
		무역수지(억 \$)	308	283	57	143	111	468	399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70	5,648	6,123	
	증감률(%)	(19.0)	(-1.3)	(0.4)	(0.8)	(2.9)	(3.1)	(8.4)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9	1,259	5,180	5,724	
	증감률(%)	(23.3)	(-0.9)	(-3.0)	(-2.7)	(0.2)	(-0.3)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4	1.1	1.2	1.4	2.4	
실업률(%)		3.4	3.2	3.6	3.1	3.0	3.3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98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